

조합, 경영진 퇴진 전방위 압박 임원 출근길 “대면투쟁” 돌입



총파업 3주차에 접어들면서 조합이 사측을 상대로 투쟁 수위를 한 단계 높이기로 했다. 우선 파업 돌입 이후 중단했던 경영진에 대한 ‘출근길 대면 투쟁’이 오늘(18일)부터 재개된다. 오늘은 전부문 조합원이 집결해 경영진 퇴진을 한 목소리로 요구할 계획이며 당분간 매일 아침 임원 출근 시간에 맞춰 ‘대면 투쟁’이 진행될 예정이다. 방법은 평화롭겠지만, 요구는 단호할 것이다. 요구는 단 한 가지, ‘즉각적인 퇴진’이다.

조합이 투쟁 강도를 높이기로 한 이유는 김장겸을 포함한 경영진의 후안무치한 행태 때문이다. 이전 정권의 추악한 방송 장악 음모가 드러났고, 그에 동조한 적폐 세력들의 ‘부역’도 확인됐다. 그 이후에도 사내·외를 가리지 않는 ‘블랙리스트’에 대한 증언들이 잇따르고 있다. 공정방송을 외치는 조합을 탄압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들도 법적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도 반성의 목소리는 나올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파업 때문에 회사 손실이 막심하다’ ‘지난 9년보다 그 이전 10년이 더 불공정했다’는 ‘아무 말’만 고장난 라디오처럼 반복할 뿐이다. 그들 스스로 되찾겠다는 MBC의 영광은 도대체 언제를 말하는 것인가. 지난 170일 파업에 대한 법원의 일관된 판결은 단 한 줄이라도 읽어보고 하는 소리인가.

‘블랙리스트’ 실행, MBC 경쟁력 약화시킨 배임

지난주 폭로된 국정원의 블랙리스트는 MBC 안의 부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행될 수 있었다. 국정원법·방송법을 위반한 범죄이자 이념과 성향만으로 불이익을 주겠다는 반민주적 처사였다. 동시에 블랙리스트의 인물 하나하나를 생각해보면 MBC의 콘텐츠 경쟁력까지 약화시킨 또 다른 형태의 배임 행위이기도 했다. 기계적 중립마저 내팽개친 편파성에 1등 방송 MBC를 이끌어 갈만한 비전과 능력 같은 건 애당초 찾아 볼 수 없었던 그들이다.

6개월 사장? 6년 실세

적법한 조사 절차를 안하무인격으로 무시할 때는 대단한 저항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김장겸은 체포 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유리잔을 깨뜨리고 도망쳤다. 그러면서 ‘6개월 사장이 무소불위 노조를 상대로 무슨 부당노동행위를 했겠느냐’고 비아냥거렸다. 그렇다. 익히 들어온 비아냥거림이고 조롱이다. 6개월 사장이라지만 김장겸은 6년 실세였다. 정치부장 김장겸 앞에서 쫄쫄매던 보도국장이, 보도국장 김장겸을 어찌하지 못한 보도본부장이, 사장이 수두룩하다. 해고, 정직, 부당전보, 유배. 피해자만 수백 명인데 노조가 ‘무소불위’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한마디로 언어도단이다.

파업이 돌입하기 전부터 술하게 강조해왔지만, 김장겸만 스스로 물러난다면 이번 파업은 없었을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김장겸만 결단한다면 우리는 파업을 풀고 방송 정상화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이다.

김장겸을 포함한 현 경영진의 즉각적인 퇴진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최기화 부당노동행위 확정!

서울행정법원, 사측 소송 기각

민주방송실천위원회(이하 민실위) 보고서를 찢고 민실위 간사와의 접촉을 막은 최기화 전 보도국장의 행동이 부당노동행위로 확정됐다. 이미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한 사안에 대해 법원도 노동조합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일 문화방송 경영진과 최기화 전 국장이 자신들의 행동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들(경영진과 최기화)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사건은 2015년 9월 9일 시작됐다. 최기화 당시 보도국장은 보도국의 한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민실위 보고서 일부를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다. 8분 뒤엔 나머지 민실위 보고서도 모두 찢어 다시 쓰레기통에 처박았다. 직후 열린 편집회의에서 최 국장은 ‘이호찬 (당시) 민실위 간사의 전화에 응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조합은 민실위 보고서를 찢은 것과 민실위 간사와 접촉을 막은 것 모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1월 서울지방법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서울지방법원은 민실위 보고서를 찢은 건 단순히 반대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

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최 전 국장의 두 가지 행동 모두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민실위 보고서 찢은 건 조합 활동 방해한 것”

경영진은 이에 불복해 소송에 나섰던 것인데,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치졸한 노조탄압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만 법원 판결로 확인됐을 뿐이다. 재판부는 “보도국 서랍장에 민실위 보고서를 비치한 것은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판단”된다며 “(민실위 보고서를 찢은 행위로) 보고서가 보도국 직원들에게 노출될 기회가 줄어 들었고 이는 결국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는 결과”라고 적시했다. 또 “민실위 보고서는 처음 발행된 이후 근 30년 간 주로 문화방송의 보도 내용을 비판하는 내용을 다루었다”며 “그로 인해 문화방송의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이 침해되었다고 볼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공정방송은 노사 양측의 의무”

무엇보다 고무적인 것은 ‘공정방송’이 ‘노사 양측의 의무’이며 언론노동자가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문화방송



과 같은 방송사의 경우 공정방송의 의무는 방송법 등 관계법규 및 단체협약에 의하여 노사 양측에 요구되는 의무임과 동시에 근로관계의 기초를 형성하는 원칙이라 할 수 있으므로 원고(사측)들은 그 구성원들에게 방송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근로환경과 근로조건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적시했다.

지금까지 MBC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일관되게 지적하고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우리가 지금까지 외쳐왔던 그 얘기를 이제 대한민국 법원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판결로 검찰이 최 전 국장을 기소할 가능성은 커졌다. 무도했던 그들의 노조탄압 행위도 법적 심판을 받을 날이 멀지 않았다.

“낙하산은 가라!” 제1회 강변 파업제 김장겸과 낙하산 퇴진 춘천 결의대회



의암호를 품에 안은 절경의 춘천MBC 사옥. 푸른 잔디의 야외 음악당이 전국 18개 지부 MBC 1천여 조합원들로 가득 채워졌다. 지난 목요일, 김장겸을 비롯한 전국 MBC의 낙하산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제 1회 ‘강변 파업제’가 열렸다. 잔잔한 호숫가에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속에 진행됐지만, 공정방송과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조합원들의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춘천에 집결하기 불과 몇 시간 전, 국정원의 방송장악 음모가 MBC에서 어떻게 작동됐는지를 낱알이 폭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기 때문이다. 도건협 수석부위원장은 “김재철 김종국 안광한 김장겸, 이 네 명의 사장 모두가 블랙리스트를 그대로 실행에 옮겼다”며 “이번 파업으로 탄압의 칼날을 받은 서울지부 뿐 아니라 낙하산 사장으로 조직이 망가진 전국 MBC의 부활도 이뤄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나 ‘강변 파업제’가 열린 춘천MBC의 사정은 심각했다. 헛바닥을 내밀고 직원들을 조롱하거나, 조합원들을 피해 전력질주하며 도망가는 송재우 사장의 기이한 행동을 영상으로 접한 조합원들은 모두 실소를 금치 못했다. 한편으로는 사과를 요구하는 조합원을 유치한 연사로 모욕하는 송 사장의 모습에 분노를 쏟아내기도 했다. 이번 파업 행사에 앞서 춘천MBC 조합원들은 송 사장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춘천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춘천에 모인 조합원들은 직원을 욕보이고 불법을 일삼은 낙하산 사장의 말로가 어떤 모습인지, 그 때도 저렇게 헛바닥을 내밀 수 있을지 끝까지 함께 지켜볼 것을 다짐했다.

정대균 전 수석 ‘30년 근속 기념상’

의미 있는 행사도 열렸다. 김재철의 횡포에 맞서다 지난 2010년 해고됐고, 3년 만에 복직한 정대균 전 수석부위원장은 조합이 마련한 ‘30년 근속’ 기념상을 받았다. 사측은 지역MBC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불법으로 몰아 해고시키더니, 재입사 조치 이후 근속 30년조차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 그간 갖은 탄압으로 고초를 겪었을 그는 오히려 “후배가 재입사한 나한테 ‘입사 5년차가 어디서 반말이냐’고 놀린다”며 여유 있는 웃음으로 감사의 말을 전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날 받은 상금 전액을 투쟁기금으로 기부했다.

깃발을 따라 행진하며 춘천 MBC를 둘러싸는 ‘인간띠 잇기’ 행사를 마지막 순서로 강변 파업제는 막을 내렸다. 삼삼오오 모여 앉은 조합원들은 춘천지부에서 정성껏 마련해 준 ‘원조’ 춘천닭갈비와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특산물을 맛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오랜만에 얼굴을 본 조합원들은 서로의 안부를 물었고, 그동안 힘겨웠을 동료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넸다. 김연국 위원장은 “노동조합은 함께 있을 때 서로 아픔을 이야기 하고 부끄러운 기억을 나누고 성찰한다”며 “우리는 모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파업 2주차를 마무리하며 춘천에 모인 조합원들은 ‘강변 파업제’를 통해 하나가 됐고, 더 강력한 투쟁을 다짐했다.

마봉춘 세탁소 전국 지점 개소! 팔도가 발레 열풍!



MBC의 구정물을 뽀뽀 빨고 있는 마봉춘 세탁소! 흥행 열풍은 전국 팔도 지점 개소로 이어지고 있다. 대구지점을 시작으로 충북, 포항, 안동, 울산, 광주까지 무서운 기세로 뻗어나가더니 급기야 ‘우리 지역은 왜 없냐’는 개점 요청이 거세다. 곳곳에서 페이스북 라이브로 알리는 집회 소식과 쓸데없이(?) 퀄리티 높은 파업 홍보 영상은 왜 이들이 일터로 복귀해야 하는지 보여준다. ‘방송 장악’이라는 뽀뽀한 피켓을 든 자유한국당 지역구 의원들의 장외 홍보전은 지역 조합원들에게 폭격 당했다. 차마 한마디도 할 말이 없었는지 어떤 의원은 아예 SNS 상에서 자취를 감췄다. 파업에서 승리하고 돌아가는 날, 백배는 강해진 보도와 프로그램이 지역의 적폐를 기록하고 기억하고 청산하리라!

전국으로 퍼지는 ‘돌마고’! 연대로 함께 간다.

출근길 시민들에게 ‘김장겸 퇴진’을 외친지 2주째. 냉랭하던 반응은 격려와 응원으로 변하고 있다. ‘힘내라’는 학생, 응원 의 경적소리를 울려주는 택시 기사, 지지 방문을 해주는 시민들까지. 연대는 뜨겁다. ‘돌마고’ 파티 역시 팔도로 번지고 있다. 안동에선 시민들과 함께하는 문화제를, 충북에선 시민단체 주최로 ‘돌마고 충북’을 개최했다. 조합원들은 공영방송 재건을 약속했고, 평소 숨겨왔던 끼와 실력으로 김장겸과 낙하산 일당을 우리 손으로 끌어 내릴 것을 다짐했다. 전주에서 준비한 MBC 응원 차량 부착 피켓은 제작과 동시에 동이 났다. 전주 시내버스 노조에서 4백 장을 요청하는가 하면, 공영방송 회복을 바라는 시민들의 요청으로 추가 제작을 고심하고 있다.



만나면 좋은 친구, 신뢰와 강한 네트워크 복원으로!

공영방송의 기능과 역할이 무너지고 ‘흥기’로 변한 뒤에도 그나마 MBC를 지켜준 것은 지역민이었다. 60년 가까운 세월, 굳건한 지지의 바탕은 오직 MBC라는 브랜드, 그리고 ‘신뢰의 네트워크’였다. 그러나 지난 9년 김재철, 안광한, 김장겸 일당이 지역으로 보낸 이들은 지역을 이해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경쟁하듯 조합원을 조롱하고, 한 명 한 명을 옆 자리에서 지워냈다. 그렇게 모두 언론 본연의 일을, 존재 이유를 잃어갔고 언론인이 아닌 회사원으로 전락하며 지역민을 배신했다. 그리고 ‘세월호’가 깊은 곳으로 떠나갔고, 촛불이 타 올랐다. 만약 서로를 믿었던 MBC의 네트워크가 그토록 무너지지 않았다면, 점령자들이 지역을 1%라도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었다면 희대의 오보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MBC 재건은 수평적 네트워크, 신뢰의 네트워크 복원이 우선이다.